

# 경북도, 의료시설·인재개발원 등 건립... 신도시 활력 높인다

신도시 진입 연계도로 9개 계획  
K-과학자마을·단독주택지 등 공사  
인구 증가는 아직 미미한 실정



레이크빌리지

경북도청 신도시가 올해 들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시설 인 기인타워가 이달 중 개원돼 피부과, 성형외과, 소아과가 들어설 예정이고 현재 신도시에는 한 곳도 없는 정형외과와 함께 치과(현재 3곳)에 대한 입점 협의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는 경북도 인재개발원이 준공된다.

내년에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경북도기록원, 경북중기음식체험관, 2027년에는 경북도립예술단, 경북사회복지회관 및 노인회관, 스포츠 캠펙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신도시 진입 연계도로는 모두 9개 노선이 계획돼 현재까지 4개 노선이 완공됐으며 이달 중 신도시와 풍천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0.5km(폭 21m)의

도로가 완공된다.

신도시~안동터미널, 신도시~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는 2027년 완공계획으로 있다.

호민지 인근에서 지난해 9월 스탠포드 호텔이 준공된 데 이어 지난 10일 착공된 'K-과학자마을'이 내년 6월 완공되면 현재 한창 조성 중인 인근의 '레이크빌리지'와 함께 호민지 주변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K-과학자마을'은 전국 최초의 은퇴 과학자를 위한 주거단지로 2만

8076㎡의 부지에 주택 45가구(38동), 주민 공동시설(쉐어오피스, 다목적홀, 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호민지 옆에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단독주택단지인 '레이크빌리지'는 109필지 가운데 48필지가 분양된 가운데 곳곳에서 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신도시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 단독주택지는 분양이 미미한 인근의 한옥단지와 달리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꾸준한 계약이 이뤄져 모두

31필지가 분양됐다.

이처럼 신도시의 걸모습은 빠르게 바뀌고 있으나 인구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매년 12월 말 기준)는 2020년 2만24명, 2021년 2만1245명, 2022년 2만2061명, 2023년 2만2591명, 지난해 2만2787명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한 연간 인구 증가는 2020년 2581명, 2021년 1221명, 2022년 816명, 2023년 530명, 지난해 196명 등으로 매년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인재개발원이 들어서고 올해 상반기 이후 5000여 가구의 공동주택 추가 공급과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이 준공되면 다시 인구 증가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전 과급효과가 큰 유관기관 이전과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첨단산업단지 등의 활성화에 힘을 써 신도시의 활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기장군

####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등 견인

기장군은 오는 4월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에 대한 견인을 시행하면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 금지 구역에 방치된 PM이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군은 PM 업체에 수거 또는 이동 계고를 하고, 이후 1시간 내 이동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을 진행한다. 견인 조치에 따라 PM 업체에는 기본 4만원의 견인비와 30분당 700원의 보관 요금이 부과된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대구시

#### 청년들에 지역기업 면접비 지원

대구시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기업에서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 소재 기업에 면접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대구 소재 기업의 면접에 참여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검토 후 승인 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타지역 청년이 대구 소재 기업에 면접을 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업에서 자체 면접비를 지원하거나, 대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등은 해당이 안되며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회 5만 원만 지원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해남군서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열려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선정  
테마별 전시관, 프로그램 등 운영



전라남도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 공모 결과,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이 선정됐다. /전남도

전라남도는 '2025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로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을 선정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우수한 캠핑장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색적인 테마 캠핑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최적지로 해남군이 적극 추진했다.

박람회 개최지가 선정됨에 따라 전남도와 해남군은 전국에서 찾는 캠핑관광 박람회가 되도록 캠핑푸드관, 로컬푸드관, 반려동물관, 국제관 등 테마별 특별 전시관을 운영한다. 캠핑용품 DIY, 바비큐 체험, 밀키트 체험, 농활 체험, 세계캠핑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온 가족이 와서 함께 즐기도록 하느네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적 공간 배치 및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가능

한 캠핑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캠핑 팬투어 확대 등으로 향후 국제캠핑박람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선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올해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는 단순한 박람회를 넘어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페스티벌 형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캠핑 가족과 관광객에게 다채롭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는 등 성공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완도군, 장애인 복지 향상에 88억 투입

기초 급여 인상, 바우처 등 지원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장애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88억원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기초 급여액이 지난해 대비 7700원이 인상돼 34만 2510원으로 책정됐으며, 부가 급여 9만원을 포함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에는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에는 28억원을 편성

하여 활동 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서비스 질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난해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총 18개소에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신장 장애인 투석비,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장애인 보조기기 등도 지원한다.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이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율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광주시, 2028년 자산배수지 신·증설 목표

수돗물 안정적 공급

광주시가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확대한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2028년까지 자산배수지를 새로 건설하고 지원 배수지는 2배 가량 증설한다.

'배수지'는 수돗물을 12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물량을 확보하는 시설물이다. 높은 곳에 설치된다.

'자산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304억4500만원을 투입해 시설용량 1만4000㎥(고지 1만㎥·저지 4000㎥)와 송·배수관로(관 직경 D600~700mm, 연장 L=5.6km)를 신설한다.

지난 2019년 시작된 공사는 현재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8년 완공후에는 북구 두암동과 동구 산수·지산·지원동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증설이 추진되는 '지원배수지'는 총사업비 192억9900만원 투입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 나주시, 소규모 현안사업 발주 80% 육박

지난해 대비 약 20% 상승 수치

전남 나주시가 소규모 지역 현안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소규모 현안사업 총 237건(190억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80%에 육박하는 186건(101억원)을 조기 발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주율 대비 약 20% 상승한 수치다. 남은 물량도 조기 발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공사 발주 과정에서 나주에 사업장을 둔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나주시가 민생 안정 종합대책으로 추진한 '소규모 현안사업 신속 발주'

는 시 건설과에서 시설직 공무원 15명을 3개조로 편성해 꾸린 '자체 설계단' 운영이 주효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사업 지역 조사 측량과 설계 등을 완료한 데 이어 자체 설계를 통해 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마을 안길,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활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주민 애로 해소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달 윤병태 시장이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한 주민 건의 사업 89건(46억원 규모)도 자체설계단을 통해 내달 초 신속히 발주할 예정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 함평군

#### 함평나비대축제 사전예매 할인

전남 함평군은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10% 할인 사전예매를 내달 24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내달 25일부터 5월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입장권은 내달 2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전예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는 티켓링크와 네이버에서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예매는 17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 내 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 부산시

#### BRT 정류장에 도시숲 조성

부산시는 가야대로 BRT 정류장 12곳(주례역~동의대역)을 사시사철 식물이 변화하는 모습을 즐길 수 있는 정원형 도시 숲으로 조성한다.

시는 가야대로 BRT 정류장을 도심에서 자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주의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도시열섬을 완화하고 부산다운 차별화된 녹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주의 정원은 봄에는 새싹, 여름에는 싱그러움 초록빛, 가을에는 갈대와 단풍의 변화와 같은 모습들을 담은 작은 정원과 짧은 산책로가 조성된다. /부산=이도식 기자